

입관자 190명 배출...광주대 학생군사교육단 창설 10주년 기념식

성과·비전 공유...호무제 행사도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학생군사교육단 창설 10주년을 맞아 최근 학교 백인관에서 기념식과 호무제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대 학군단이 이뤄낸 10년간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후보생들의 사기 진작과 단결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012년 12월에 창설된 광주대 학군단은 현재까지 총 190여 명의 장교 입관자를 배출했다. 특히 2022년도 학군사관후보생 하계입영 훈련에서 종합 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창설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펼쳐진 호무제는 사관 후보생 활동 영상과 부모님 및 동문 선배 축하영상 시청,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또 총동문회에서 우수후보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동진 총장(왼쪽 가운뎃) 등이 학생군사교육단 후보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김동진 총장은 "학군단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인재로 활동하며, 광주대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며 "여러분의 땀과 명예를 가슴속에 새기

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항상 솔선수범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여대 물리치료학과, 홈커밍데이 행사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물리치료학과는 최근 무등관 강의실에서 학과 교수 및 졸업생, 재학생 등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여대 제공>

대용제약, 취약계층에 건강기능식품 7300만원 상당 전달



대용제약은 73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최근 기탁했다. 물품은 적십자 봉사원들이 광주전남취약계층 25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전남개발공사, 완도 소안도에 생수 2만1000병 지원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가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완도군 소안도 주민들에게 생수 32t(시가 1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사진> 공사는 소안도 주민들이 장기간 식수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생수 2t짜리 2만1000병을 마련했다.



소안도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소안 미라제 수원지 저수율이 4%를 밑돌고 있으며, 섬 주민들은 단수와 급수 제한으로 일상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소안도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생수 지원에 나섰다"며 "하루빨리 가뭄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주민들이 곧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ad@kwangju.co.kr

지스트 김경웅 교수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회장 선출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지구·환경공학부 김경웅 교수(국제환경연구소 소장·사진)가 (사)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는 최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결산총회를 개최하고 김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년간이다.

김경웅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전략광물자원 확보와 이와 관련된 환경이슈에 대한 해결 기술과 과학기술 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가 현재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BTS 진, 13일 현역 입대... "배웅은 마음으로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맴형 진(사진)이 오는 13일 입대를 앞둔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대 당일 현장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팬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박히트뮤직은 6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진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다"며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은 현장 방문을 삼가 달라. 진을 향한 따뜻한 배웅과 격려는 마음으로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10 동네 한 바퀴(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35 콧노랑 카타르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카타르월드컵 2022 하이라이트 모닝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해 불만 아침 M&W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스포츠 스페셜(재)	00 KBS 드라마 스페셜 2022 (프리즘)(재)	15 꾸러기 식사교실(재) 45 시간탐험대 다이나맨(재)	00 애니갤러리 30 슈퍼다이스 45 하니와 숲속친구들
12	00 KBS 뉴스 12	15 국제 예미상 수상 기념 (연모) 스페셜	00 12 MBC 뉴스 25 일당백집사(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2022 카타르 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40 헬로키즈 공학교실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 30 어린이 동물티비			
3	00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하이라이트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몽계공항(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시사건건	00 신상출시 펀스토링(재)	55 5 MBC 뉴스	00 최강 1교시(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마카엔로니 2 15 시크릿 주주 베스트프렌즈 30 풀짱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틀 포레스트- 두 번째 계절	50 태풍의 신부	05 그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10 고양이 목에 마йка달GO 30 내 눈에 콩깍지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KBS 드라마 스페셜 2022 (열아홉 해달들)	00 일타강사 50 일당백집사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편먹고 공치리4 -진검승부 특별판
11	30 KBS 뉴스라인	10 커튼콜(재)	10 라디오스타	
12	10 시사기획 창(재)		50 안정환의 히든 카타르 스페셜	20 나이트라인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베스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히어로 씨클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워킹디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네가 빠진 세계
07:15 하프와 친구들	12:10 극한직업	19:30 한국의 들레길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3:0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9:50 건축탐구-집
08:00 똥덩어리 유치원	13:50 위대한 유산 - 동남아시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4:45 한국의 들레길	<아프리카 버킷리스트, 탄자니아 -아름다운 유혹, 잔치바르>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고고다노 우리동네공룡(재)	15:35 꾸러기 전사들	<배낭 기행 3부 맛있는 동네>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EBS 친구들 생생	16:15 페퍼 피크	22:45 인간과 바다
09:30 어떻게 만들까	16:25 슈퍼퍼퍼 잉글리시(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우리집 유치원	16:40 똥덩어리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7일(음 11월 14일 甲午)

<p>36년생 가까스로 벗어나게 되는 형상이다. 48년생 곧은 각오로 임한다면 반드시 흥성도 사라지리라. 60년생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 72년생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빈틈이 보인다. 84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능률적이다. 96년생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23, 72</p>	<p>42년생 중간 점검과 대조가 절실히 요망된다. 54년생 폭염 속에서 폭우가 쏟아짐에 비유할 만하다. 66년생 반복될 뿐 별다른 전진을 보이지 않는다. 78년생 대단한 각오로 임하지만 중도에서 포기할지도 모른다. 90년생 기대치에 못 미치어 실망하는 판도이다. 02년생 공멸어 왔던 바가 다 방향으로 전철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9, 88</p>
<p>37년생 국면을 확실히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49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순탄하다. 61년생 전체를 이해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확보하자. 73년생 명검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점진적으로 임하라. 85년생 손발이 척척 맞아서 손조로움을 더 하겠다. 97년생 사후의 방면이 되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10, 81</p>	<p>43년생 구조와 형태가 특이할 것이니 작오가 없어야겠다. 55년생 행선지에서는 어느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67년생 서로 응하여 융합하게 되는 기쁨이 상당하다. 79년생 실수한다면 의외의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아. 91년생 당연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03년생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9, 91</p>
<p>38년생 확실한 변별력이 절실하다. 50년생 전혀 자질이 없을 것이니 계획대로 행하라. 62년생 강력한 장애 요인 앞에서 곤혹스러워하는 위상이다. 74년생 정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86년생 어떠한 경우라도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 98년생 방심하고 있다면 어려운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4, 98</p>	<p>44년생 장고한다면 참된 결론에 이른다. 56년생 전례를 답습한다면 소모적이다. 68년생 지금 도모하지 않는다면 침체하게 된다. 80년생 여러 말을 다 할 필요 없이 핵심적인 몇 마디만 하면 그만이다. 92년생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면 자연히 따르리라. 04년생 중요한 얘기를 우연히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7, 96</p>
<p>39년생 적합한 대상과 관련되면서 전전을 보인다. 51년생 표방하는 바와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은 하늘과 땅 차이다. 63년생 발상은 참신하나 진행 속도는 점진적이어야만 하는 나라. 75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호전될 것이다. 87년생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 99년생 안배를 잘해 나간다면 성취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0, 87</p>	<p>33년생 행하고 싶지 않거니 실행하지 말라. 45년생 일시적으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느니라. 57년생 전혀 다른 것이니 처음부터 관련시킬 필요는 없다. 69년생 잠시 오름세를 보이다가 소강 상태에 빠지는 형태이다. 81년생 잡다함은 차치하고 핵심 현안에 집중하자. 93년생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충실에 힘써야겠다. 행운의 숫자 : 31, 85</p>
<p>40년생 강력한 자극을 받게 될 날이다. 52년생 신뢰하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흠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64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산적이나. 76년생 경험을 통한 체득의 가치가 크다. 88년생 사소함에서 비롯된 불화가 생기기 않도록 하라. 00년생 명분은 무의미하니 실속을 차려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7, 79</p>	<p>34년생 빠른 속도의 전진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46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느니라. 58년생 끝나는 마당에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70년생 반드시 준비하여야만 국면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 82년생 악순환의 연결 고리는 과감하게 끊자. 94년생 예견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33, 69</p>
<p>41년생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다 보면 추진력이 떨어지느니라. 53년생 잃었던 것을 되찾는 기쁨이 클 것이로다. 65년생 다른 것은 분류하고 비슷한 것은 모으자. 77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89년생 절호의 찬스를 놓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01년생 모순된다면 굳이 엮매일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2, 62</p>	<p>35년생 시적이 반이 될 것이니 과감한 실행을 요한다. 47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판세로는 미약하다. 59년생 중대한 기로에 서서 반드시 선택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이다. 71년생 유대 관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83년생 길흉이 바뀌어 가며 변화무쌍하다. 95년생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46, 59</p>